

보도설명자료

('18. 6. 20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'脫원전' 선언했던 국가들 속속 '親원전' 복귀

('18. 6. 20, 한국경제)

1. 기사내용

- 프랑스는 그 비중을 2025년까지 50%로 낮추려다 작년말 계획을 수정했으며 목표 달성 시기를 5~10년 늦췄음
- 미국은 지금도 원전 2기를 건설하고 있음
- 일본 역시 2015년 '원전 체로' 정책을 폐기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

☐ 동 기사는 脫원전을 선언한 국가들이 親원전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하고 있으나, 이는 사실과 다름

- 프랑스는 '15.8월 에너지전환법을 제정하여 '25년까지 원전의 발전 비중을 50%로 축소하도록 하였으며, 최근 원전감축 목표시점 조정에 대해 논의 중일 뿐 에너지전환법이 개정된 것은 아님
- 미국은 '79년 TMI사고 이후 원전건설을 하지 않다가 '12년 건설을 재개하였으나, 경제성 문제로 2기(VC Summer)는 중단되었고, 2기(Vogtle)는 주정부의 지원으로 건설이 재개된 사례임
- 일본은 일부 원전을 재가동하였으나, 원전 재가동은 사실상 지자체 동의가 필요하고 그외에도 규제기관의 사용전 검사 승인 절차를 통과해야 해, 재가동 확대 여부에는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음

※ 문의 :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정중영 과장(044-203-5320)
김형석 서기관(044-203-5322)